국립 소록도병원 개원 90주년

‘당신들의 천국’ 작가 **이청준씨 특별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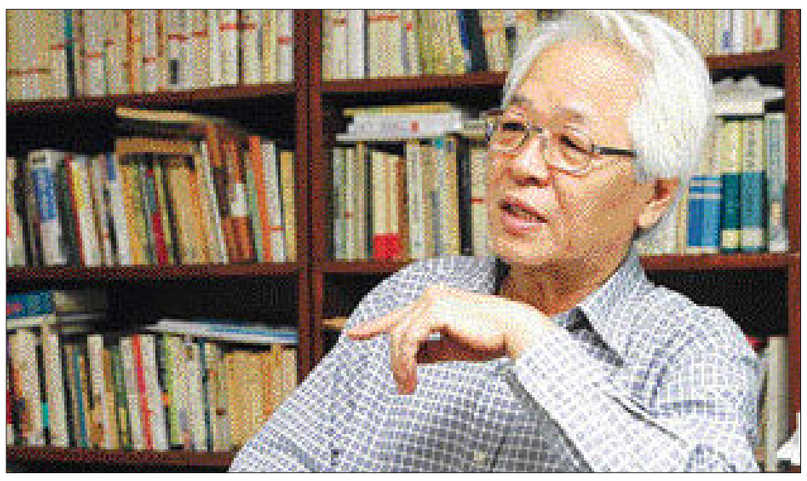
국립 소록도병원이 지난 17일로 개원 90주년을 맞았다. 일제가 지난 1916년 5월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자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웠던 병원. 작가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이 바로 그 무대이다. 그의 소설은 ‘소록도’ ‘한센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록도 90주년을 맞이해 작가 이청준이 생각하는 ‘소록도’와 ‘당신들의 천국’ 취재 당시의 이야기를 경기도 성남시 작가의 자택에서 들어보았다.

“이제 ‘우리들의 천국’ 만들어야죠”

한센인 삶의 권리마저 빼앗아선 안돼
실존 주인공 조원장 한센인 ‘영혼의 사제’
소설 읽은 간호사는 독신으로 평생 봉사

이청준의 고향은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이다. 그의 고향 마을에서는 ‘소록도’가 코 앞이다. ‘사상계’에 근무하던 1966년, 작가는 조선일보 이규태기자가 쓴 ‘소록도 르포’를 읽고 무릎을 쳤다. 학창시절 소풍을 갔을 정도로 익숙한 소록도가 퍼뜩 한편의 소설로 다가 온 것이다. 곧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76년, 민음사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출간했다.

“소록도를 택한 이유는, 그곳의 현실이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인류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을 목적으로 그들을 억압했던 원장들은 ‘일제’시절을 상징합니다. 단지 ‘병’을 가졌을 뿐인 한센인들의 고난은 5·16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와 자유가 억눌리는 알레고리’를 표현하기 위해 소록도와 한센인을 주제로 택했죠.”


작가 이청준이 자신의 서재에서 ‘당신들의 천국’ 집필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소록도 주제로 민주·자유 표현

처음부터 소록도에 들어가 취재를 하지는 않았다. 되려 섬 밖에서 미리 써놓은 원고가 900여 장이나 됐다.

“서울의 한 한센병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잡지와 한양대 의대 민득영 박사 등의 도움을 얻어 소록도의 역사·현황·한센병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가며 한 편의 소설을 구상했어요. 1973년 말 소록도에 들어갔고, 월간 ‘신동아’에 ‘당신들의 천국’이 연재되기 시작한 것이 1974년1월호부터였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소설 속 ‘조백헌 원장’은 실존 인물이다. 1961년부터 3년간 14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오마도 간척 사업’을 주도했던 조창원(80)씨가 바로 그 주인공. 작가가 소록도에 들어갔던 것은 소설 속 조 원장의 모습이 다소 독선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집필 과정의 에피소드 중에는 조 원장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처음에 소록도에 들어갔을 때 조 원장은 제게 ‘세 달은 이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미 소설을 써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설득해 일주일 동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섬에서 도망 나오고 말았어요.(웃음)”

당시 조 원장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오마도 간척지가 한센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애쓰다 당국의 압력까지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조 원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원장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소록도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전도유망한 군인이 세속적 출세에 대한 야심을 버리고, 진폐증 환자, 한센병 환자를 위해 신명을 바쳤습니다. 소설의 1부는 내가 썼고, 나머지 2부는 주인공(조창원씨)이 실제로 완성한 셈입니다. 진정한 ‘거인’이지요.”

이씨는 “조 원장은 한센인들의 ‘의사’이면서 ‘영혼의 사제’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취재 3일만에 도망쳐 나와

작가의 시선은 다시 개원 90년을 맞는 소록도를 둘러싼 현실로 돌아왔다. ‘한센인 인권 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록도에 한센인을 강제 격리하고, 생체실험까지 감행했던 것은 세계사에서 찾기 힘든 나쁜 사례입니다. 유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시 행해졌던 해부 자료라든가 시설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뜻깊게 보존했으면 합니다. 전제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느냐 아니냐가 되겠지요.”

그는 같이 살 수 있도록 안고 가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센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자긍심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조 원장은 이런 생각들을 몸소 실천해 ‘사람다운 세상’ 즉 ‘천국’ 만들기에 적극 앞장 선 것이고, 작가는 이를 ‘기호화’(소설화) 함으로써 동참한 셈이다. 또 많은 이들이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등 ‘천국 만들기’는 확대 재생산을 거듭하고 있다.

“어느 날 소록도에 갔는데 한 간호사 아가씨가 ‘선생님, 제 젊음을 빼앗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묻습디다. 허 허….”

이야기인즉슨 ‘당신들의 천국’을 읽은 한 간호사가 시집가는 것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잊은 채 소록도에 들어가 일하더니 2년 전에는 이디오피아 난민촌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 간호사는 ‘이 섬(소록도)만 해도 제 삶이 꽃피기에는 호사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삶이 꽃피기에 호사스러운 곳, ‘낙원’. 그렇다면 ‘당신들의 천국’이 아닌, ‘우리들의 천국’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결국 ‘당신들의 천국’에 등장하는 ‘천국’은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낙원 건설’의 일부입니다. 소록도 주민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구요. 물론 그들은 낙원건설에 실패했죠. 지금은 낙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실패는 삶의 역사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소록도를 끌어안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남=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당신들의 천국’ 줄거리

소설은 5·16 직후 군의관 조백헌 대령이 소록도병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천국’을 건설하겠다며 득량만을 매립하는 간척지 공사에 한센병 환자들을 동원한다. 21개월이나 걸린 이 공사 기간 동안 환자들과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이전의 병원장들이 소록도에 천국을 만든다며 환자들을 착취하고 원장 자신만을 영웅화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열성을 보여도 섬사람들에게는 이전 원장들의 전철을 되밟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던 것이다.

번뇌하던 끝에 조백헌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섬을 떠난다. 그로부터 5년 후, 그는 이제 원장이 아닌 평범한 섬사람으로 소록도에 돌아온다.

하지만 소설은 한센병 음성병력자인 병원직원 윤해원과 간호사 서미연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들의 천국’을 향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장미축제 인파 휴일이자 ‘장미축제’ 마지막날인 21일,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조선대 장미원을 찾아 만개한 장미꽃을 보며 오후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장미원은 축제이후에도 오는 11월까지 개방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초·중·고생 대상 ‘톡톡 발명 페스티벌’

오늘부터 서구 농성역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22일부터 6일간 지하철 서구 농성역에서 ‘톡톡 발명 페스티벌’을 연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등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교육의 장, 체험의 장, 전시의 장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명의식 확산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육의 장은 초·중·고 학생들의 발명품과 저연비 자동차, 카트 등이 전시되며 체험의 장에는 무선 자동차 경기장과 볼슬레이 및 탑블레이드 트랙 등 청소년들이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전시의 장에는 무선모형물 전시 및 발명신문 경진대회 입상 작품 등이 선보이고, ‘빛과 소리 타악 페스티벌’과 ‘과학자 캐릭터 퍼포먼스 쇼’와 발명악기 만들기 대회, 발명 OX퀴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22일) 나재호 224-7749
- 법무사회 법률상담(22일) 박환원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